

# 시소러스를 연계한 문학류 패싯 분류체계 개발\*

## Developing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Integrated with a Thesaurus for Literature

박지영(Ziyoung Park)\*\*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소러스 연계 패싯 분류체계(FCT)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십진분류법을 패싯분류표로 재구조화시키고,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디스크립터와 연계하였다. FCT를 기존의 KDC와 비교하면 1) 복합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2) 인용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3)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분류표의 표목을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하여 분류표와 시소러스 간에 패싯을 공유하고, 분류표목의 개념수준 확장에 활용할 수 있었다.

### 【키워드】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분류체계, 시소러스, 주제명표, 패싯분류, 한국십진분류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linked with a thesaurus(FCT) to more effectively organize documents according to subject, by transforming the current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KDC) into a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and linking it with Korea's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 This combination should represent complex subjects more clearly, allow users to change citation order, and facilitate the addition of new subjects to the KDC scheme. Furthermore, by linking a thesaurus to the classification scheme, it is possible to share facets and expand the conceptual level of headings through the thesaurus descriptors.

### 【Keywords】

Classification Scheme, Faceted Classific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 Subject Headings, Thesaurus

## 1. 서론

우리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체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헌에 담긴 지식을 구조화하여 왔다. 분류체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도구로 꼽을 수 있으며,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주제검색 도구이다. 대부분의 정보서비스가 제어되지 않은 키워드를 이용한 이는 자료(known-item)의 검색에 치중되어 있는데 반해(Markey 2006, 2-4), 분류체계는 모르는 자료의 검색을 위한 구조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분류체계는 자료의 물리적인 배열 뿐 아니라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정보자료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규칙이기도 하다. 분류체계가 검색조건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이용자의 시야에 제시하고, 관련 자료로 확장검색을 하기 위한 구조화 방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단일 계층구조 중심인 기존의 열거형 분류체계는 지금과 같은 정보환경에 적합한 검색 수단으로 작용하기가 어렵다. 서가의 물리적 배열과 같이 하나의 계층구조만 가능했던 과거에는 정보원의 주제 중 일부만을 분류기호로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는 정보원에는 있으나 분류기호로 표현되지 못한 주제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분류표를 이용할 때도 하나의 고정된 계층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지 않고, 필

\*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hobbit@naver.com)

논문접수일자 : 2010년 8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10년 9월 5일    게재확정일자 : 2010년 9월 25일

요한 부분의 분류항목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여러 관점으로 조직된 주제 구조를 향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 분류표인 한국 십진분류법(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을 개선하여 디지털 정보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정보자료의 주제를 구조화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즉, 새로운 분류표는 주제표현력이 높아 복합주제의 표현에 적합하며, 분류표목의 결합규칙이 명확하고, 새로운 분류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구조를 변경하기도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패싯분석을 통해 분류체계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주제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패싯분석은 주제를 표현하는 단위인 개념이 속한 범주를 분석하고, 각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패싯을 적용한 분류체계는 주제표현 뿐 아니라, 분류표의 구조 정보를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생성하기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분류표의 개념수준을 확장하기 위해 분류표목을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하였다. 분류표와 시소러스는 자료의 지적·물리적 배열과 검색의 접근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문헌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동일한 주제분석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목록레코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류표보다 상세한 수준의 개념을 다루는 시소러스는 분류표목의 개념수준 확장에 유용하다.

연계 시소러스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ational Library Subject Headings, NLSH)를 선정하였다. 개선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류표와 시소러스를 선정할 것은 우리나라의 문헌분류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이며, 나아가 국가서지 개발에도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분야는 문학류를 선정하였다. 이는 문학류가 주류 중에서 패싯분석과 시소러스 연계에 매우 적합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KDC에서는 한정된 범위의 주제만을 표현할 수 있으며, 표목의 열거기준이나 분류기호의 조합방식에도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에 적용된 패싯분석 방식이나 시소러스 연계 및 분류규정과 같은 전체적인 틀은 문학 외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패싯분석

패싯분석은 콜론분류법(Colon Classification, CC)의 구축에 사용된 방법론으로서 다차원적인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Sachdeva 1980; Satija 1989; and Ranganathan 1960). 또한 패싯분석은 분류표의 구축 외에 시소러스의 구축에도 활용된다.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에 직접 패싯을 부여하거나, 기존의 패싯분류표와 디스크립터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패싯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1.1 주제 유형

주제 유형은 패싯구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패싯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주제 유형을 이해해야 한다. 패싯분석 이론에서 주제는 기본주제(basic subject)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기본주제와 개체개념(isolate ideas)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개체개념이란 기본주제와 결합하여 새로운 주제를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어린이’나 ‘인도’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개체개념은 ‘아동교육’이나 ‘인도의 농업’과 같이 기본주제와 결합하여 합성주제(compound subject)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때 ‘교육’과 ‘농업’은 기본주제가 된다. 기본주제와 합성주제 외에도 ‘종교와 철학’과 같이 복수의 기본주제가 결합된 복합주제(complex subject)가 있다. 이러한 복합주제는 미리 예상하여 분류표에 열거하기가 특히 어려우므로, CC에서는 이를 불완전한 결합으로 규정하고 ‘상’(phase)이라는 개념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Ranganathan 1967, 89-91).

#### 2.1.2 주제 간의 결합관계

합성주제와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개별 주제 간의 관계는 분류표에서 패싯관계와 상관계로 나타난다. 즉, 패싯관계는 합성주제에 포함된 기본주제와 개체개념 간의 관계이며, 상관계는 복합주제에 포함된 복수의 주제 간의 관계이다. 이 때 패싯은 주제가 될 수 없으므로 패싯과 기본주제가 결합된 합성주제는 그 주제에 포함된 기본주제의 하위류가 되며, 이를 패싯관계라 한다. 그리고 분류표에서 패싯관계를 계층구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패싯을 상위구분지에서 하위구분지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구분특성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복합주제는 복수의 기본

주제가 결합되었으므로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주류에 속하거나 동일 주류 내의 상이한 계열에 속하는 등의 불완전한 관계가 되는데, 이를 상관계라 한다. 따라서 패시관계는 분류표 내에서 계층관계로 표현될 수 있지만, 상관계는 계층관계로 표현될 수가 없다.

## 2.2 시소러스 연계

### 2.2.1 분류표목의 제어와 확장

분류표와 시소러스는 모두 어휘제어를 통해 개념을 구조화하고 있으나, 개념구조를 구축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분류표는 주로 상위수준의 지식을 점차 세분화해 나가는 하향식인데, 시소러스는 개별 개념에서부터 상위개념으로 이동하는 상향식 구조화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표는 특정 지식분야의 상위 개념구조를 제공하지만, 특정성이 높은 하위개념과의 관계는 시소러스와 같은 다른 어휘제어 도구를 통해 부가적으로 나타내야 한다(Sager 1990, 37-39). 그런데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가 항상 분류표목보다 상세한 개념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시소러스는 분류표목과 동일한 수준의 개념을 통해서도 분류표를 보완할 수 있다. 분류표목에 대응되는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가 분류표목의 이형들을 제어함으로써 이용자가 분류표목에 접근하는 경로를 다양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류표와 시소러스는 상이한 개념 수준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보완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분류표목의 접근점을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를 통해 확장할 수도 있다.

### 2.2.2 범주정보의 도입

전통적으로 시소러스는 분류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범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나(김태수 2000, 278), 현재는 자모순 배열 중심의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에 범주정보가 도입되고 있다. 시소러스에 범주정보를 부여하는 경우는 시소러스 자체에 주제범주를 부여하거나 외부의 분류표를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도 시소러스에 특정 분류표를 결합시키거나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에 직접 분류기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시소러스가 분류표의 기능도 수행한다. 정영미는 시소러스에 부여된 범주의 유형을 포괄적 주제범주, 계층적 디스플레이, 분류체계로 구분하였다(1997, 123-127). 여기서 포괄적 주제범주와 계층적 디스플레이는 계층적인 단일 범주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열거형 분류표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분류체계 중에서도

특히 패시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는 시소러스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서 여러 장점이 있다. 분류표가 시소러스 구축에 필요한 기본 어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분류표목의 구조를 시소러스 용어관계의 식별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Broughton 2006, 59).

## 2.3 선행연구

### 2.3.1 웹듀이와 FAST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DDC)은 22판에서부터 '웹듀이'(WebDewey)를 통해 DDC를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LCSH)나 미국의학도서관 주제명표(Medical Subject Headings)의 표목과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웹듀이에서 DDC와 LCSH를 연계한 방식에는 'EM', 'PPT', 'SM'이 있다. 이 중 'EM'은 DDC 편집위원이 직접 연계한 방식이고, 'PPT'는 우선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연계한 뒤 DDC 편집진이 수정한 방식이며, 'SM'은 통계기법 중 용어 동시출현기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연계한 것이다(OCLC WebDewey. [online]).

반면에 Faceted Access to Subject Terminology(FAST)는 LCSH에 패시를 적용하여 재구조화한 것이다. FAST에 패시를 도입한 것은 도치표목과 세목 등 복잡하고 논리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LCSH의 구조를 보완하고, 보다 명확하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FAST는 6개의 패시를 도입하였는데, 주제 패시와 지리 패시, 형식 패시, 시대 패시, 이름 패시, 복수 패시로 구성된 구(phrase)표목이 이에 해당한다(Dean 2004, 336-341).

### 2.3.2 일본 기본주제명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NLSH에 해당하는 기본주제명표(Basic Subject Headings, BSH) 4판의 표목에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NDC)의 분류기호를 함께 표기하였다. BSH의 특징은 분류기호를 이용하여 주제명표목을 자모순과 분류기호순 두 가지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각 표목에 분류기호를 함께 제시하면, 문헌에 주제명을 부여할 때 NDC도 같이 참고하여 관련 표목을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NDC와 연계된 BSH의 장점으로는, 1)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동일 분야에 속한 주제명을 모아서 볼 수 있다는 점과, 2) 분류와 주제색인 작업은 공통부분이 많으므로, 이 두 작업을 연계하면 정리 업무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표 1〉 CCT의 분류기호와 주제명표목 대응표(출처: Liang 2006, 77)

• 분류기호 → 주제명표목	
C03 과학적 방법론 O551.3 물질의 열성질 열전도, 열팽창은 O551.3에 넣고, 구체적인 항목, 예를 들어 금속열전도에 대한 저작은 TG113.223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을 색인으로 선정한다.(열교환은 TK124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에서 색인한다. O482.2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도 참고하라. G271 당안관리(기록물 관리) G275.9 기타 당안(그외 기록물 관리)	사회과학 - 과학적 방법론 물질 - 열학성질 주: 금속열전도에 관한 저작은 TG113.223에 대응하는 주제명표목에서 색인, 열교환은 TK124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에서 색인한다. O482.2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도 참고하라. 당안관리(기록물 관리) 인사당안(인사 기록물)
• 주제명표목 → 분류기호	
이론사회학	C91 D(UF) 준이론사회학 Z(TT) 사회학 C(RT) 응용사회학
법률, 각국	D93/97 주: 세계지도와 보조표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을 조합하여 색인. 예) 일본법제사; 법제사 - 일본

들 수 있다(日本圖書館協會 件名標目委員會 1999a, 12, 25). 따라서 BSH를 이용할 때는 우선 BSH 표목에 연계된 NDC 분류기호를 이용하여 분류기호를 배정한 다음에 그 분류기호와 연계된 주제명표목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표목을 선정한다(日本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1995, 394; 日本圖書館協會 件名標目委員會 1999a, 398; 日本圖書館協會 件名標目委員會 1999b, 118).

### 2.3.3 중국분류주제명표

중국에서는 1994년에 에이치슨(J. Aitchison)의 시소러패시를 모델로 삼아 중국의 대표 분류표와 주제명표를 통합한 '중국분류주제명표'(Chinese Classified Thesaurus, CCT)를 개발하였다. 즉, CCT는 중국의 국가 문헌분류표인 '중국도서관도서분류법'(中國圖書館圖書分類法)과 주제명표인 '한어주제명표'(漢語主題詞表)를 통합한 것이다(Liang 2008, 5-6). CCT의 사례는 〈표 1〉과 같은데, 표의 윗부분은 분류기호를 기준으로 그에 대응되는 주제명표목을 제시한 것이고, 아랫부분은 주제명표목을 중심으로 그에 대응되는 분류기호를 제시한 것이다.

## 3. 기존 도구 분석

### 3.1 한국십진분류법

#### 3.1.1 분류규정

열거형 분류체계인 KDC는 부분적으로 분석합성 방

식을 도입하여 표준구분이나 문학형식구분, 국어구분과 같이 별도의 조기표를 마련하였으나, 실제 분류과정에서는 대부분 미리 합성하여 본표에 열거해 둔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KDC에서 모든 주제와 결합 가능한 표준구분을 제외하고는 미리 합성하지 않은 주제를 표현하기는 어렵는데, 특히 전주제구분이나 특수주제구분과 같이 별도의 합성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대개 합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인 경직성으로 인해 문헌의 주제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방정환 아동 문학선'의 경우에는, '아동문학'과 '소설', '선집'과 같이 분류 가능한 속성이 있는데, KDC 규정에 따르면 '한국 20세기 소설(813.6)'에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아동문학'이나 '선집'과 같은 특성은 반영할 수 없다. '아동문학'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문학사, 평론(809.9)'의 관점에서만 분류할 수 있고, 현대 소설과 합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문학교육론'도 마찬가지로 '아동문학'과 '교육' 중 하나의 주제만 선정하여 문학비평의 하위항목인 '특수문학(809.98)'에 분류해야 한다.

이와 같이 KDC에서 복합주제는 분류표 상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분류규정에 따르면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주제 중 하나의 측면만을 분류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일부 복합주제, 이를테면 '문학미학(801.17)'이나 '문학심리학(801.18)'이 전조합표목으로 본표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항목의 수도 극히 적으며 논리적인 표현방식도 아니다. 예를 들어 '문학 속의 언어학'이라는 문헌은 '문학' 뿐 아니라 '언어학'에도 속하며,

‘문학이론과 비평의 조율’이라는 문헌은 모두 문학류에 속 하긴 하나 ‘문학이론(801)’과 ‘비평(809)’이라는 상이한 구분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문헌을 KDC로 분류하면 둘 다 ‘문학이론(801)’에 분류하게 되어, ‘언어학(700)’과 같은 특정 주류를 표현할 수 없거나, ‘비평(809)’과 같은 상이한 구분지를 무시하게 된다.

### 3.1.2 구분특성

분류표에서 구분특성은 동일 범주에 속하는 성원이 공유하는 특징으로서 구분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구분특성에 따라 분류표의 계층이 전개되며, 동일 구분특성 내의 구분지는 상호배타적이 된다. 그런데 KDC를 보면 동일 계층에 복수의 구분특성이 적용되어 있다. <표 2>를 보면, 분류표목 중에서 ‘초록, 요약(802.062)’이나 ‘논문작성법, 해설법(802.066)’은 문장형식에 따른 작문법의 유형이나, ‘평이문장법(802.067)’이나 ‘아동용 문장법(802.068)’은 이용계층에 따른 작문법이므로 ‘문장작성법, 수사학(802)’ 항목 내에 상이한 구분특성을 동시에 적용한 것이다.

<표 2> KDC 문학류의 분류표목 예시

KDC 문학류	
문장작성법, 수사학	802
각국어의 문장작성법	802.04
한국어 문장작성법	802.041
기타 국어 문장작성법	802.042-049
각종의 문장작성법	802.06
초록, 요약	802.062
논문작성법, 해설법	802.066
평이문장법	802.067
아동용 문장법	802.068
(구분특성이 제시되지 않음)	( - )
운율학, 시작법	802.1
희곡, 극작성법	802.2
소설작성법	802.3

이와 같이 복수의 구분특성을 동시에 적용하여 동위류를 형성하면 교차분류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국 분류표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떨어지게 된다.

### 3.1.3 조기표

KDC 조기표 중에서 표준구분은 특정 주제를 표현형식이나 물리적 형식 등에 따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모든 주제와 결합할 수 있는데, 문학류에서는 ‘800~809’의 목(目) 항목에 미리 결합되어 있다. 표준구분 항목은 크게 서술형식과 편집 또는 출판형식으로 구분되는데, KDC 5판의 해설에 따르면 서술형식에 따른 표준구분 항목은 기호 ‘-01’, ‘-07’, ‘-09’에 해당하며, 편집 또는 출판형식에 따른 항목은 ‘-02’, ‘-03’, ‘-04’, ‘-05’, ‘-06’, ‘-08’에 해당한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4).

그런데 표준구분을 별도의 조기표로 관리하고, 문학류에 합성하여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면 미리 본표에 열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문학류의 특성상 ‘문학이론(801)’ 항목과 ‘문학사, 비평(809)’ 항목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학류에 해당되는 문헌은 크게 시나 소설과 같은 창작의 산물과 그 산물을 평가한 비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학이론과 비평의 경계가 모호하여 교차분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점은 ‘비교문학(800.09)’에도 해당되는데, 비교문학도 문학비평이나 문학사 연구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KDC 표준구분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정 작품에서 다룬 대상이나 작품의 주요 독자층에 해당하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같은 형식의 문학작품이라도 대상 독자나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림 1>을 보면 KDC에서는 주제를 합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교사’나 ‘여성’과 같은 인물의 측면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 3.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 3.2.1 기본구조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NLSH)의 주요 특징으로는 후조합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명사구 형식의 전조합 방식을 일부 도입했다는 점과 세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복수의 상위개념과 분류방법을 부여한 점 등이 있다

- (초등 교사를 위한) 글쓰기 이론과 실제  
→ 문장작성법(802) 또는 초등교육과정, 한국어(375.4+71=375.471)
- 서사무가에 나타난 여성형상 → 한국소설, 21세기(813+7=813.7)

<그림 1> KDC에서 인물 표현의 한계

〈표 3〉 NLSH에서 복수의 상위개념 사례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02, 82)

복수의 상위개념 예시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2002, 82)			복수의 상위개념 수정 예시		
• 문학[文學]	NT	독일 문학[獨逸文學] 스페인 문학[--文學] 영미 문학[英美文學] .....	• 문학[文學]	NT	동양 문학[東洋文學] 서양 문학[西洋文學] .....
• 동양 문학 [東洋文學]	NT	일본 문학[日本文學] 중국 문학[中國文學] 한국 문학[韓國文學]	• 동양 문학 [東洋文學]	NT	일본 문학[日本文學] 중국 문학[中國文學] 한국 문학[韓國文學]
• 한국 문학 [韓國文學]	BT	동양 문학[東洋文學] 문학[文學]	• 한국 문학 [韓國文學]	BT	동양 문학[東洋文學]

(국립중앙도서관 2002, 77-86). 그런데 디스크립터에 복수의 상위개념을 부여할 때는 복수의 하위개념을 열거할 때와 같이 상위개념 간의 상이한 개념수준과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NLSH 구축원칙에 따르면, 문학의 하위 개념 중 ‘일본 문학’과 ‘중국 문학’, ‘한국 문학’은 ‘동양 문학’이라는 범주에도 포함되므로 〈표 3〉의 좌측과 같이 복수의 상위범주를 할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 항목은 ‘문학’의 하위 개념인 동시에 ‘동양 문학’에도 속하게 되어 복수의 상위개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동양문학’과 ‘문학’이라는 서로 상이한 개념 범위와 수준을 가진 두 용어가 동위류에 속하게 되므로, 〈표 3〉의 우측과 같이 용어관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에 복수의 상위개념을 갖도록 규정할 때는 상호 배타적인 상위개념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념 간의 상세성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복수의 상위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시소러스의 계층관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2.2 범주정보

NLSH에서는 일부 용어를 대상으로 관계지시기호를 이용하여 KDC 분류기호를 부기하고 있는데, 주로 유·강 수준에서 디스크립터와 표목의 연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실제 분류과정에서 주제명표목을 참고하거나 색인 시 분류표와 시소러스를 효과적으로 상호참조하기는 어렵다.

NLSH의 주제명표목에 범주정보를 부여하는데 KDC 기호를 사용한 것은 기존의 분류표를 사용하므로 경제적 이고, 전 주제분야를 포괄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DC 분류기호의 구조와 범위가 NLSH 용어와 상이한데서 생기는 적용상의 문제가 있어 연계 시에 다음과 같은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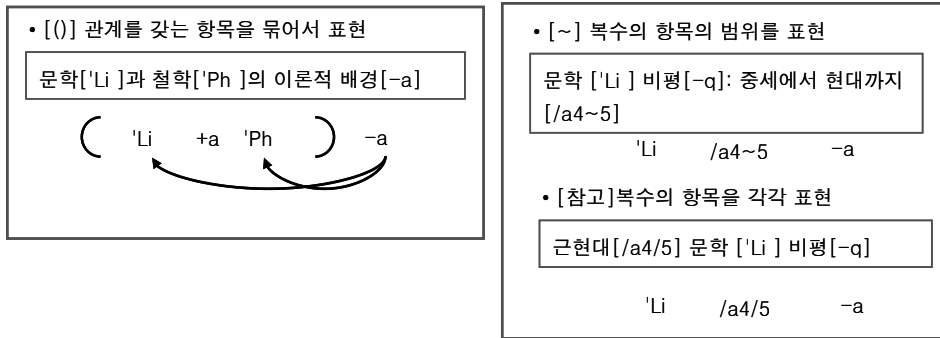
이 발생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02, 68-75).

- ① 분류표와 시소러스의 계층구조가 상이하므로, 계층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디스크립터와 일치하는 분류표목에 해당하는 KDC 분류기호만 표기한다.
- ② KDC에서는 일부 언어나 종교와 같은 주요 항목에 대부분의 번호를 사용하고 나머지 주제는 모두 9에 몰아서 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디스크립터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일부 추가할 수 있다.
- ③ NLSH의 복합어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식어나 핵심어만 분리하여 KDC와 연계한다. 그러나 본표와 보조표를 합성한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도 있다.
- ④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가 분류표목보다 특정성이 크므로,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용어는 상위 분류표목과 연계한다.
- ⑤ 인명이나 단체명 등의 고유명에 대한 분류기호는 전기나 역사 또는 활동분야로 분류한다.
- ⑥ 용어에 할당할 분류기호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적합한 분류기호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기호를 표기하거나 분류불가 항목으로 처리한다.
- ⑦ 복수의 분류기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기호를 우선 표기하거나 복수의 분류기호를 부여한다.

4. 문학류 분류체계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소러스 연계 패싯분류표(Faceted





〈그림 3〉 주제범위 기호 예시

계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제1상과 제2상의 구분이 없는 일반관계와 비교관계는 '+'로 표현하고, 상의 구분이 있는 영향관계와 도구관계는 '&'로 표현하였다. 상을 구분할 때, 영향관계에서는 영향을 받은 쪽이 제1상이 되며, 도구관계에서는 연구대상이 제1상이며, 도구로 사용된 쪽이 제2상이 된다.

또한 주제 범위는 괄호와 물결표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괄호는 연속되지 않은 둘 이상의 주제가 결합된 경우를 표현한다. 〈그림 3〉의 왼쪽 사례는, '문학과 철학의 이론적 배경'이라는 주제를 괄호를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즉, '문학'과 '철학' 뒤에 위치한 공통 패킷 '이론'이 '문학'과 '철학' 모두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문학'과 '철학' 대신에 '철학'과 '이론'이 괄호로 묶여 있다면, 공통 패킷인 '이론'은 '철학'이라는 주제에만 해당될 것이다. 물결표는 연속된 범위를 표현하는데, 〈그림 3〉의 오른쪽 사례를 보면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시대를 포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1.2 패킷공식과 인용순서

각 패킷은 고유의 기호를 가지므로 서기배열이나 화면상의 검색결과 디스플레이 등을 위해 이용자가 선호하는 특정 인용순서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류 예시를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기본적인 패킷 인용순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인용순서를 다양화함으로써 복수의 계층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문학형식은 학문분야 패킷 중 문학의 하위 패킷이므로 인용순서 내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학문분야(해당시 필수)] → [언어구분(해당시 필수)] →
- [국가구분(해당시 필수)] → [시대구분(해당시 필수)] →
- [인물구분(선택)] → [공통형식(선택)]

## 4.2 패킷분류표

### 4.2.1 학문분야 패킷

FC는 문학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문학류를 포함한 복합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학문분야 패킷을 포함하였다. 구분지는 KDC의 주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기존 주류 중에 사회과학이나 순수과학, 기술과학은 구성요소 간의 결속력이 약해 하나의 학문분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구분지로 세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FC는 학문분야를 주류로 취급한 기존의 분류표와 달리, 학문분야도 하나의 패킷으로 간주하였다. 학문분야를 패킷으로 취급하면, 모든 문헌을 분류하는 출발점으로 학문분야를 우선 선정하도록 강제하지 않게 된다. 학문분야는 자료를 지적·물리적으로 배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패킷기호는 기존의 아라비아 숫자 대신 학문분야명의 약자를 사용하였다. 해당 분야를 연상하기 쉽도록 현재 KDC 주류 표목의 영문명에서 두 글자를 채용하였는데, 첫 자는 대문자로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패킷기호에 로마자를 사용한 것은 고정된 배열순서를 미리 열거하지 않기 위한 이유 외에, 새로운 분야를 쉽게 삽입하기 위한 고려도 있다.

학문분야 패킷 중에서 '문학'은 〈표 5〉와 같이 '문학형식'과 그 하위 패킷인 '한국 문학형식'으로 구성된다. 문학형식이라는 구분 자체가 문학을 전제로 하므로 문학 패킷의 하위패킷이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KDC 문학형식 구분에서 항목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구분지는 '기타산문'으로 취급하거나 삭제하였다. 그리고 각 문학형식 하위에는 언어별로 고유한 개별 형식이 존재할 수 있는데, FC에서는 한국문학에 해당하는 특정 문학형식을 하위패킷으로 제시하였다.

〈표 5〉 문학분야를 중심으로 전개한 학문분야 패시

기호	표목
'Ge	총류
'Ph	철학
'Re	종교
'Ar	예술
'La	언어
'Li	문학
……	……

**학문분야 패시 (전체)**

문학형식 패시	
기호	표목
'Li'Po	시
'Li'Dr	희곡
'Li'Fi	소설
'Li'Le	서한
'Li'Or	연설
'Li'Pr	기타산문

한국문학형식 패시	
기호	표목
'Li'(Po.kor1)	향가
'Li'(Po.kor2)	고려가요
'Li'(Po.kor3)	약장, 가사
'Li'(Po.kor4)	내방가사
'Li'(Po.kor5)	시조
'Li'(Po.kor6)	민요

4.2.2 언어 및 지리 패시

FC에서는 표준화된 기호인 ISO 규격에 제시된 지리 코드와 언어코드를 이용하여 언어 패시와 지리 패시의 구분지를 전개하였다. 외부 표준을 패시으로 도입하면 언어나 지명에 대한 약어를 코드로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 ① 특정 언어나 지명을 우선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다.
- ② 약어를 사용함으로써 패시기호의 표현력이 우수해진다.
- ③ 국제표준으로 관리되므로 패시에 속하는 구분지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언어 패시기호는 'ISO 639-2: alpha-3 code in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 - Part 2'를 바탕으로 미국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부호를 이용하였다(Library of Congress.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 [online]). ISO 639-2는 세 자리 약어로 언어를 표기하는데, 두 자리로 표기하는 ISO 639-1보다 포괄하는 대상 언어 범위가 넓다.

그리고 지리 패시에는 한국목록규칙 제4관의 부록에 수록된 국명형식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ISO 3166: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countries and their subdivision'을 바탕으로 한 공식명과 관용명이다(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2003, 477-512: 위키백과 "ISO 3166-1" [온라인]). 단, 2-alpha code가 없는 유럽연합과 국제기관은 임의의 두 자리 약어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제표준 코드와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바탕으로 어족과 어파, 개별 언어를 구분하였으며, 지명은 각 대륙별로 국명을 구분하였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4.2.3 시대 패시

시대구분은 분류대상인 작품에서 다룬 시기를 나타내는 패시으로 특히 문학분야에서의 시대 패시는 문학 작품이 발표된 시기와 연계된다. 그런데 시대는 '고대'나 '중세'와 같이 시기별로 표현할 수 있으며, '17세기'나 '20세기'와 같이 세기별로도 표현할 수 있고, '조선시대'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와 같이 특정 국가의 왕조와 결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 구분의 특성으로 인해 KDC와 같은 열거형분류표에서 각 시대를 학문분야별 하위주제와 결합할 때는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분류표목 자체가 시대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대구분을 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고대 시가의 형식인 '향가'는 분류표상에서 시대구분을 하지 않고 '문학 > 한국문학 > 시 > 향가'와 같이 계층구조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에 FC에서는 기존 분류표에 나타난 다양한 시대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시대 패시를 '시기별 구분'과 '세기별 구분', '국가별 구분'으로 나누고,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시대구분을 하위로 전개하였다. 시기별 구분과 국가별 중 한국 시대구분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때 각 시대 패시의 하위구분인 국가의 구분 항목은 기존 KDC의 한국시대구분 및 문학류의 각국 문학의 시대구분을 참고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2009, 912-923). 그리고 시대 패시의 상세 항목은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연계하여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는데, 특정 시대의 각 왕조나 각 왕조별 역사적인 사건, 특정 공화국의 대통령 이름 등은 시소러스 디스크립터를 통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표 6〉 FC의 시대 패킷과 한국 시대구분

구분기준	구분항목	한국 시대구분 (/c.kr)	하위구분
(a) 시기별 구분	(1) 선사시대	(1) 원시시대	-
	(2) 고대	(2) 고대(상)	(21) 고조선시대(-108BC)
	(3) 중세		(22) 한사군현설치시대(108BC-313AD)
	(4) 근대		(23) 한사군현설치이후시대
	(5) 현대	(3) 삼국시대 (57BC-936AD)	(31) 고구려
(b) 세기별 구분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 세기로 표시 예) B.C. 3세기→[/bBC3] 20세기→[/b20]		(32) 백제
	(c) 국가별 구분		국가패킷을 앞에 표기한 뒤, 국가별 하위 패킷에 따라 표기
			(34) 가야
			(각 왕조는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
		(4) 고려시대 (918-1392)	(각 왕조는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
		(5) 조선시대 (1392-1910)	(각 왕조는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
		(6) 항일시대 (1910-1945)	(삼일운동 및 기타 독립운동은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와 연계)
		(7) 대한민국시대 (1945-)	(71) 군정시대(하위 항목인 제1~6공화국은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연계)
			(72) 문민정부(1993-1998)
			(73) 국민의 정부(1998-2003)
			(74) 참여정부(2003-2008)
			(75) 이명박정부(2008-)

4.2.4 인물 패킷

문학작품에서 인물은 작품이나 비평의 주요 서술대상이거나 이용대상이 되는데, KDC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FC에서는 DDC의 표준구분(T1) 중에서 '-08' 항목과 FAT-HUM의 인물

보조표를 바탕으로 〈표 7〉과 같이 인물 패킷을 구성하였다(Dewey 2003, FAT-HUM Classification, [online]). 이 때 FAT-HUM의 인물 보조표에서는 인물구분에 적용 가능한 패킷(구분기준)을 참고하였으며, DDC의 T1에서는 실제 구분지 항목을 참고하였다.

〈표 7〉 FC의 인물 패킷

구분기준	구분항목
(a) 성별에 따른 구분	(1) 남성 (2) 여성
(b) 나이 및 연령대에 따른 구분	(1) 신생아 (4) 아동 (7) 장년기
	(2) 영아 (5) 청소년 (8) 중년기
	(3) 유아 (6) 청년기 (9) 노년기
(c) 가족/친족관계에 따른 구분	(1) 조부모, 조상 (3) 자녀 (5) 형제
	(2) 부모 (4) 손자, 후손 (6) 친족
(d) 혼인상태에 따른 구분	(1) 미혼자 (3) 기혼자 (5) 사별한 사람
	(2) 약혼자 (4) 이혼한 사람
(e) 수입수준에 따른 구분	(1) 부유층 (2) 중산층 (3) 빈민층
(f)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구분	(국가구분 패킷과 연계)
(g) 종교에 따른 구분	(종교 패킷의 하위 패킷과 연계)
(h) 직업/직장에 따른 구분	(상세항목을 분류표의 패킷과 연계하거나 시소러스와 연계)
(i) 신체, 건강 상태에 따른 구분	(상세항목은 시소러스와 연계)
(j) 특수한 상황에 있는 계층	(상세항목은 시소러스와 연계)

〈표 7〉에서 열거되지 않은 항목은 기존 분류표의 패시와 연계하거나 시소러스와 연계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인을 위한’과 같이 ‘한국인’이라는 인물 구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인’에 대한 인물 패시 합성  
→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구분’: [〈f〉 + 지리 패시 중 ‘한국’: [.kr] + 패시 합성기호: [( )]: <(f.kr)>

#### 4.2.5 공통 패시

공통 패시는 KDC의 표준구분을 수정한 것으로 〈표 8〉과 같다. 기존 KDC 분류표목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은 ‘논문’과 ‘작문법’, ‘비평’인데, 앞의 두 항목은 기존의 문학류 본표에 열거된 ‘작문법(802)’과 ‘논문작성법(802.066)’이 문학류에만 포함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통 패시로 이동시킨 것이고, 세 번째 항목인 ‘비평’은 기존 본표에서 ‘문학사(809)’와 분리하여 공통 패시에 추가한 것이다. ‘비평’은 문학분야의 매우 중요한 접근점이지만 철학이나 종교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므로 공통 패시에 포함시켰다.

〈표 8〉 FC의 공통 패시

기호	표목	KDC
-a	철학 및 이론	-01
-b	편람, 핸드북	-021
-c	법령, 규정	-023
-d	도표, 도감, 통계표	-025
-e	서지, 초록, 색인, 해제	-026
-f	논문	(추가)
-g	보조기법 및 절차	-027
-h	특허, 규격, 상표	-029
-i	사진	-03
-g	용어집, 약어집	-034
-k	지도법	-071
-l	연구방법론	-072
-m	교육자료	-074
-n	작문법	(추가)
-o	역사	-09
-p	전기	-099
-q	비평	(추가)

### 4.3 시소러스 연계

#### 4.3.1 학문분야 패시와 연계

학문분야 패시와 시소러스의 연계는 ‘문학(Li)’과 그

하위패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9〉는 FCT의 사례로서, FT의 학문분야 패시인 ‘문학’, ‘시’, ‘항가’가 FT의 용어인 ‘현화가’, ‘제망매가’, ‘쌍화집’과 연계된 경우이다.

〈표 9〉 학문분야 패시와 시소러스 연계 예시

• 옛사람 옛노래 항가와 속요 (기존) [KDC]811.109[811.409] [NLSH]항가, 속요 → KDC에서는 복합주제를 표현할 수 없어서 ‘항가(811.1)’를 제1분류기호로 배정하고, 추가로 ‘고려가요(811.4)’를 선정하고, 표준구분(‘평론(-09)’)함 → NLSH의 주제명이 KDC표목의 개념과 유사하나, 연계정보가 없음
(개선) [FC]’Li’(Po"kor(1+2))-q: 문학, 시, 항가, 고려가요, 비평 [FT]’현화가’, ‘제망매가’, ‘쌍화집’ 등 ‘항가’와 ‘고려가요’의 하위개념으로 연계된 디스크립터 이용

#### 4.3.2 언어 및 지리 패시와 연계

언어 패시이나 지리 패시는 기본적으로 국제표준에서 지정한 코드값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언어 코드는 개별 언어 이외에 어족이나 어파와 같은 상위 언어구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리 패시명으로 사용한 국가 코드에는 대륙구분을 추가하였다. 언어 패시이나 지리 패시와 연계된 시소러스는 특정 언어의 하위 구분으로서의 방언이나, 특정 국가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디스크립터로 나타낼 수 있다.

#### 4.3.3 시대 패시와 연계

시대 패시에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등과 같은 일반적인 구분항목은 비교적 상세하여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거의 대등하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별 시대구분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류표에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FC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대하여 시대 패시의 하위 패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특정 왕조나 사건은 시소러스 디스크립터와 연계하도록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시대구분에서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를 표목으로 제시하였지만, 각국의 특정 왕조는 시소러스 디스크립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항일 시대는 표목으로 제시하였지만 삼일운동을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은 디스크립터를 통해 연계할 수 있다.

#### 4.3.4 인물 패킷과 연계

인물 패킷과 연계할 수 있는 시소러스 디스크립터는 일반 주제명으로서 특정 사회 계층의 상세 표목과 인명으로서의 작가나 피전자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존에 분류표에서 열거했던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작품의 서술 대상으로서의 사회 계층을 디스크립터를 통해 더욱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특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작가의 전기나 비평서 등을 분류하는데 효과적이다. 언어와 문학형식 간에는 어느 정도의 의존관계가 성립되지만(한국어-고려가요, 일본어-교겐(狂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은 이와 같이 하나의 의존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를 '개인명(주제명)'으로 처리하고, 그가 활동한 분야가 복수인 경우에는 복합주제로 처리하는 것이 분류표의 표현력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 4.3.5 공통 패킷과 연계

공통 패킷은 주로 문헌의 형식 측면을 다루는데, 서술 형식이나 출판 형식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문학분야에서는 문예사조와 같은 항목을 공통 패킷과 연계하여 시소러스 디스크립터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비평'이라는 측면은 공통 패킷에서 제시하고, 그 하위의 각 문예사조에 해당하는 '실존주의'를 비롯하여, '사실주의', '낭만주의' 등은 시소러스 디스크립터로 제시하는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KDC의 주제표현력을 높이고, 구조화 방식을 다양화하며, 상세분류가 가능하도록 분류기호와 표목을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식의 구조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개선 대상으로는 문학류를 선정하였으며, 분류기호와 표목을 구조화하기 위한 방법론은 패킷분석을 도입하였고, 표목의 제어와 확장을 위해서는 시소러스를 연계하였는데, 이를 '시소러스 연계 패킷분류표'(FCT)라 하였다. FCT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주제의 표현방식과 수 - KDC에서는 문헌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선정해야 하므로, 합성주제 표현에 제약이 있고 복합주제는 거의 표현할 수가 없다. 하나의 문헌에 대해 2개 이상의 KDC 분류기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 방식도 복합주제 표현에 적절하

지는 않다. 복수의 기호를 부여해도 그 기호들 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할 수도 없으며, 미리 열거되지 않은 주제는 필요한 개별 개념만 추출하여 합성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FCT는 합성주제나 복합주제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적합한 패킷을 선정하고, 이를 자유롭게 결합시킬 수 있다.

- ② 패킷 인용순서 - KDC는 패킷 인용순서가 하나로 고정되어 본표에 열거되어 있는데, 9구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 인용순서가 달라지거나 모호하여, 분류기호의 일관성과 논리성이 떨어진 다. 그러나 FCT에서는 인용순서를 자율화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순서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킷마다 고유한 패킷기호를 가지므로 인용순서가 변경되어도 기호의 조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학문분야 패킷의 도입 - 기존의 분류표에서 분류담당자는 우선 문헌의 주제가 어느 학문분야에 속하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이에 FCT에서는 학문분야도 하나의 패킷으로 취급하여 학문분야를 선정하지 않아도 패킷을 합성하고, 학문분야 패킷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는 인물 패킷이나 공통 패킷과 연계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은 여성학, 한국학 등의 학제적인 영역을 표현하기에도 유용하다.

그리고 분류표에 시소러스를 연계한 것은 시소러스의 전자제어 기능을 분류표목에도 적용시키고, 보다 상세한 개념은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를 통해 나타내는 방식을 통해 표목의 특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헌에 출현 가능한 모든 개념을 분류표에 열거하기 보다는 시소러스의 디스크립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학류에서는 저작명이나 저자명과 같은 개별 개념이 주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의 개념은 양적으로도 방대할 뿐 아니라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분류표목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분류체계의 개발 범위로는 문학류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문학류가 패킷분석과 시소러스 연계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열거형 분류표인 KDC의 한계로 인해 문학류의 구조적인 특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킷분석이나 시소러스 연계와 같은 기본틀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구축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데, 적용범위를 확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패킷이

추가될 수 있다. 그리고 연계 대상 시소러스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제전거에 사용하고 있는 NLSH를 선정하였는데, 향후 NLSH를 개정할 때 본 연구의 연계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표를 확장하여 더 많은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분류체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 편. [표준국어대사전]. [cited 2009.11.2].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중앙도서관 편. 2002.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 개발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태수. 2000. 『분류의 이해』. 서울: 문헌정보처리연구회. 위키백과. [cited 2009.11.9].  
 <<http://ko.wikipedia.org/wiki/>>.  
 日本圖書館協會 分類委員會. 1995. 『日本十進分類法』.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圖書館協會 件名標目委員會. 1999a. 『基本件名標目表』. 第4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圖書館協會 件名標目委員會. 1999b. 『基本件名標目表: 分類記號順標目表 階層構造標目表』.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정영미. 1997. 『지식구조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목록위원회 편. 2003. 『한국목록규칙』. 제4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Broughton, Vanda. 2006. "The need for a faceted classification as the basis of all methods of information retrieval." *Aslib Proceedings*, 58(1/2): 49-72.  
 Dean, R. J. 2004. "FAST: Development of Simplified Headings for Metadata."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39(1/2): 331-351.  
 Dewey, Melvil. 2003.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Dublin, Ohio: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FAT-HUM Classification. Generally Applicable Concepts Common Auxiliaries Of Persons Outline. [cited 2009.10.24].  
 <<http://www.ucl.ac.uk/fatks/about.htm>>.  
 Liang, G. 2006. "A study on the Integration of Classification and Subject Heading in China: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ed Chinese Thesaurus." *Journal of Japan Societ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73-84.  
 Liang, G. 2008. "A history and backgrounds of the integration of classification and subject headings in China." *Library, information and media studies*, 5(2): 1-8.  
 Library of Congress. Codes for the Representation of Names of Languages. [cited 2009.11.2].  
 <[http://www.loc.gov/standards/iso639-2/php/code\\_list.php](http://www.loc.gov/standards/iso639-2/php/code_list.php)>  
 Markey, K. 2006. "Forty Years of Classification Online: Final Chapter or Future Unlimited?"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42(3): 1-63.  
 OCLC. WebDewey. [cited 2009.10.24].  
 <<http://connexion.oclc.org>>.  
 Ranganathan, S. R. 1960. *Colon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 House.  
 Ranganathan, S. R. 196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Sachdeva, M. S. 1980. *Colon classification: (Theory and practice) 2nd edition*.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Sager, J. C. 1990. *A Practical Course in Terminology Processing*.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Satija, M. P. 1989. *Colon classification, 7th edition: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Delhi: Ess Ess Publications.

